

사진으로 보는 제25회 로마 세계철학자대회 참관기 -“경계를 초월한 철학, 혹은 도떼기 시장?”-

박대용(동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어디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데, 대개의 학술대회 참관기는 비슷비슷하고 벌써 이 대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여기저기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 역시 식상하고 고답적인 참관기를 쓰는 큰 우를 범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족던 말빛과 글빛을 갚아야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펜을 가지고 하는 권력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법조문의 권력인데, 이는 검사나 판사가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나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권력(*판결)이다. 둘째, 작가의 권력인데, 이는 얼마 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처럼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작품)이다. 셋째, 처방전의 권력인데, 이는 의사가 처방전을 내림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주문과 같은 권력(*치유)이다. 마지막으로 학자의 권력인데, 이는 학자가 새로운 논문을 씀으로써 종래의 주장이나 타인의 가치관을 전복시킬 수 있는 수단(*논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참관기는 펜으로 쓴 글이지만 어떠한 권력도 갖지 않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비로 참여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글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족을 길게 다는 이유는 이 글마저 “지식의 저주(curse of knowledge)”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즉 이 경험은 오롯이 나의 경험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로마의 사피엔자 대학(La Sapienza University)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철학대회(XXV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Rome 2024, "Philosophy across Boundaries")에 참가했다. 우선 이 로마 세계철학자대회에 참가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작년 여름에 고려대 김한웅 교수 주관으로 "티벳문화기행"을 다녀온 몇몇 연구자들끼리 이 대회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고서, 이왕이면 발표 후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로마를 비롯해 이탈리아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나아가 차 렌트를 해서 유럽 발칸 반도를 둘러보자는 달콤한 미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사진> 2023년 여름, 고려대 김한웅 교수와 함께하는 티벳문화기행 단체사진

사실 필자는 정보 부족으로 지난 2018년 베이징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고, 당시 다음 세계철학자대회에는 꼭 참가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또한 8월 하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1회 세계중관학자대회에서도 발표해야 했기에 겸사겸사

www.kci.go.kr

참가하기로 마음 먹었다. 결국 유럽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되었다.



세계철학자대회는 1990년 아테네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된 이래 매 5년마다 전세계 철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회이다. 따라서 이 대회는 일반적인 국제학술대회가 갖는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철학자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철학적 주제로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특정 한 대학에서 개최한다고 하지 않고, 어느 국가의 특정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난 2008년 서울(장소: 서울대)에서 세계철학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8년 베이징에서, 그리고 차기 제26회 대회가 2028년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부연하자면, 지난 8월 3일 대회장에서 국제철학연맹 총회가 열렸고, 여기서 에티오피아 철학회, 아랍에미리트 하우스 오브 필로소피, 일본 철학회연합이라는 세 협회에서 차기 대회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일본 철학회연합이 차기 대회 주관 협회로 선정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첫 세계철학자대회로 치러진 이번 로마 대회는 109개국에서 5,723명이 참가했다고 주최측에서 발표했다. 학회로 신청된 8,626편 주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309편(학생 997명)만 본선에 초대되었고, 등록비는 일인당 250€(38만원)를 내야했다. 정말로 특이한 점은 이 대회는 영어로만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등 다양한 자국의 언어로 발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이것도 조만간 K-학문의 세계화와 맞물려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많은 섹션과 패널 중에서 우리 불교철학(Buddhist Philosophy) 파트는 다섯 번째 번호(No.5)를 부여받았고, 8월 5-6일 양일간 총 27명이 사피엔자대학 CU003건물 3층 맨 구석 강의실에서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 중 한국학자의 발표자는 필자를 포함해 4명이다.

#. 에피소드 하나. 로마 유적지에서 개막식 행사

8월 1일, 첫날 개막식 행사는 카라칼라 대욕장(Baths of Caracalla)에서 진행되었다.

www.kci.go.kr

사진으로 보는 제25회 로마 세계철학자대회 참관기

- “경계를 초월한 철학, 혹은 도페기 시장?” - 65

이곳은 고대 로마의 대중 목욕탕인데,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고대 로마의 찬란했던 유적지이고 밤에는 중앙에 만들어진 무대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어둠이 짙어갈 무렵, 이 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철학자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본격적인 개막식 행사로 훈장을 두른 로마 시장의 이탈리아말 환영사, 사피엔자 대학 총장의 이탈리아어로 하는 입장 연설(?), 그리고 국제철학연맹 회장인 루카 스카란티노 교수의 영어 환영사가 이어졌다. 로마 시장과 사피엔자 대학 총장의 손님을 배려하지 않는 자국어 입장 연설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긴 연설이 끝난 후 기념 행사로 푸치니의 <토스카>의 한 장면을 남녀 가수 한쌍이 공연하는 것으로 개막식 행사는 모두 끝났다.



<사진> 카리칼라 대욕장 가는 길(위), 대욕장 무대(아래 좌), 사피엔자 대학 총장 Antonella Polimeri의 환영사(아래 우)

#. 에피소드 들. 사피엔자 대학의 건물 찾기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학술대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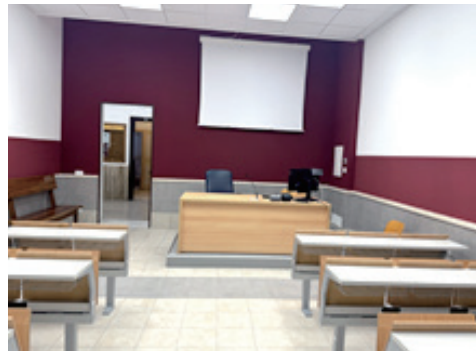


<사진> 사피엔자 대학 교정(위), 대회 접수처(아래 좌), 불교철학 발표장 CU 003(아래 우)

사피엔자 대학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유럽 남부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대학으로 유명하다. 교정은 로마 한복판에 있고, 우리 일행¹⁾이 묵은 케네디호텔에서 도보로 20분, 택시로 5분 거리에 있다. 우리 호텔은 로마 중앙역 바로 앞에 있고, 이 중앙역 안에는

피자, 스파게티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맛집들로 가득차 있었다. 대회 기간 중에 이 푸드 코너에서 국제철학연맹 회장 루카 스카란티노도 만났다. 그와 인사를 나눴는데, 그 역시 이곳 피자를 사먹기 위해 왔다고 했다.

필자의 발표일은 8월 6일이지만, 대학 교정과 발표 장소를 둘러보기 위해 8월 2일 오후에 사피엔자 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교정은 사방으로 터인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딱히 어디가 중앙인지 모를 어수선한 동선을 가진 구조였다. 어렵사리 묻고 물어서 등록처를 찾고서 대회 스텝으로부터 이름표와 기념품을 받았다. 기념품으로는 약간은 조잡한 모자와 종이부채, 그리고 얇은 백팩이었다. 그리고 나서, 필자가 발표할 건물(위 사진 아래 우측)과 강의실로 향했다. 이들 동안 열릴 ‘불교철학’ 강의실은 CU003 건물의 3층에서 오른쪽 복도 맨 끝에 있었고, 20여 명 정도 겨우 들어갈 극소형 강의실이었다. 이 장소를 찾기 전에, 다른 발표회장도 들린터라 실망감이 컸다. “이것이 철학 내에서 ‘불교철학’이 차지하는 위상이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왜 아무도 이런 강의실 배정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가! 다른 철학 섹션 발표장소는 강당도 있고, 대형 강의실도 많은데, ‘불교철학’만 찾기도 어려운 맨 구석방에 제일 협소한 공간이라... 이때부터 필자는 발표 의욕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사진> 저 복도끝 화장실 앞이 <불교철학> 발표장(좌), 강의실 내부(우)

그렇지만 대회 주최측에서 제공한 스마트폰 앱은 다른 발표들을 찾기에 아주 용이했고, 필자 역시 여기에 관심 있는 주제의 발표들을 묶어놓고 해당 건물과 강의실을 찾아다녔다. 아래 오른쪽 그림에 필자의 발표주제인 “Dignāga, One or Several Cows?:

- 1) 여기서 우리 일행은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명예교수, 고려대 철학과 김제란 강의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이경희 연구교수, 그리고 필자를 일컫는다.

The Ensof between “Others of Exclusion”(apoha) and “Emptiness”(śūnyatā)” 아젠다가 소개되고 장소와 시간이 명기되어 있어,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 이것을 미리 예약해 놓고 찾아왔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의 발표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술원(ÖAW)의 패츄릭 맥앨리스터(Patrick McAllister) 박사와 일본의 아이치(愛知)학원대학의 이시다 히사타카(石田尚敬) 교수가 일부러 발표회장에 와주었다. 이들은 모두 필자와 오랜 인연을 가진 아포하 연구 분야의 동료들이다.



〈사진〉 대회 주최측에서 제공한 스마트폰용 앱과 필자의 아젠다 소개

한편, 한국에서도 한국철학회를 중심으로 50여 명 넘게 참여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8월 6일 한국철학회 주관 패널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나 이곳 공식 앱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나 장소 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우리 일행은 한국에서 온 후배들 발표도 격려해주고 자리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자 했지만, 도저히 어디에서 언제 하는지 몰라서 참석하지 못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우리 일행들은 모두 비전임이라 각자 자비로 한국불교를 대표해서 이역만리의 철학대회에 참가했다. 대부분 이 행사를 참가하기 위해 각자 일년치 강사비를 모아 투자했다. 대학에서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불교 단체에서 비행기 값만이라도 지원받았으면 좋을텐데, 현실은 여전히 부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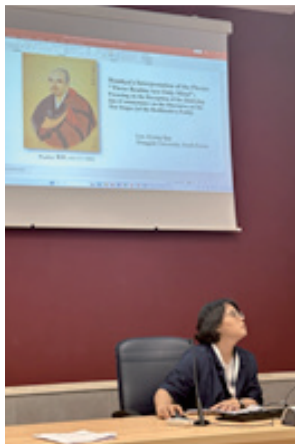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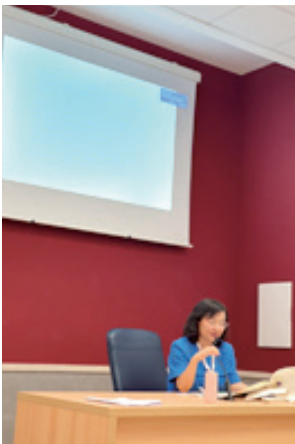
빈익빈이다.



<사진> 불교철학 발표장 건물 로비에 설치된 입간판. “철학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자 서명하는 판인데, 이경희 교수가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현지 방송국에서 촬영해 감.

#. 에피소드 셋. 발표회장 풍경과 우리의 발표장면

유명 발표자의 강의실은 이미 초만원이고, 주제가 별로거나 학생 발표의 경우는 발표 시작 전에 발표장에 있던 이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다른 발표장으로 급히 이동하는 풍경을 보인다. 특히 해당일의 마지막 발표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참가자들은 이미 발표회장을 떠나 저녁 약속 장소로 출발했거나 아니면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은 발표 날짜와도 상관이 있는데, 마지막 날 발표의 경우 이미 과장 분위기여서 대다수 참가자들은 대회장을 떠나 해당 국가를 여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벌써 귀국했을 수도 있다.



<사진> 위 사진은 불교철학 섹션 첫째날(8/5) 국립안동대 조윤경 교수 발표 장면이고, 아래 사진은 둘째날(8/6) 김제란 교수, 이경희 교수, 필자의 발표 장면.

우리의 발표는 먼저 8월 5일 첫째날 국립안동대 조윤경 교수가 발표회장에 가득찬 열기 속에서 서막을 열었다. 이날 조윤경 교수의 낭랑한 영어 발표 후에 인도에서 오신 교수들의 진지한 질문이 오가는 등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다음으로 8월 6일 두

번째날 김제란 교수의 발표는 한낱 피크 시간에 청중들이 꼭 차 있었고, 이경희 교수가 질문을 던지자 유창한 영어 답변이 돌아왔다. 뒤에 들어보니, 이 둘은 호텔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라서 서로 발표문을 들어주고 질문도 사전에 준비했다고 한다. 이어서 필자의 발표 직전 이경희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너무나 자신감에 찬 영어 발표라서 발표회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압도적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인도 텔리대에 계신 교수께서 질문을 던졌고, 그는 주제가 무척 관심이 가니 이후에 연락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가 한참 넘었을 때 드디어 필자의 발표가 시작되었는데, 사회자가 자리에 없었다. 애초에 ‘불교철학’ 섹션은 마크 시더리츠 교수와 금강대 김성철 교수가 사회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두 분들은 주최측으로부터 그런 역할에 대한 부탁도 받지 못했고, 약속한 바도 없다고 한다. 2주 후에 비엔나에서 시더리츠 교수님을 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참가자들은 이분들이 “노쇼”해서 ‘불교철학’ 섹션에서는 사회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한 분들이 사회자 없이 발표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밀려 필자의 발표 시간이 예정 발표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다. 여기에 당도했을 때도 필자가 이 ‘불교철학’ 섹션의 최종 발표자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에 없었던 인도인 여성 발표자가 내 순서 뒤에 갑자기 나타났다.

필자는 20분 발표 시간에 맞춰 진행했지만, 발표 중간에 뒤에 예정된 마지막 발표자의 어머니가 빨리 마쳐달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었다. 사실 이건 예의나 상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아임 쏘리!”라고 했다. 그 인도인 어머니가 소리지르는 데에서는 자신의 딸을 향한 맹목적인 모정에서 나오는 무모함과 무식함이 느껴졌다. 한 편의 웃지못할 에피소드였지만, 이 세계철학자대회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분이라는 발표로 뭐 그리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한 많은 철학자들은 가족 단위로 대거 온 경우가 많았다. 타이틀이 좋으니 대학에서 지원받기도 좋고, 발표 내용을 개론서 수준으로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발표 후에는 가족들 해외여행도 같이 하고, 참 좋지 않았겠는가! 암튼, 필자까지 발표를 모두 마쳤다.



발표 후에 어제 발표를 마친 조윤경 교수 내외분께서 로마 시내에서 아주 괜찮은 레스토랑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했다. 유서깊은 로마땅에서의 성공적인 '불교철학' 발표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우리 모두들, 웰던! 참 잘했어요! 2025년 독일 라이프치히 세계불교학대회(IABS)를 기약하며...”



<사진> 발표를 모두 마치고 자축연, “모두들 웰던!”

#. 덧붙이는 말

위 사진은 대개 필자가 찍은 사진이니, 의도치 않게 사진에 나오는 선생님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인생을 사는 데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로 값진 경험과 추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